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사랑의 매! 이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21년 새해 벽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라는 참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모두들 알다시피 몸무게가 겨우 8kg에 생후 6개월인 정인이는 입양된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결국 복부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해에는 한 참 어여쁠 9살 아이가 여행가방안에 갇혀있다 숨지기도 했다.

분명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이고 언론에 종종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치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더욱 우리를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대부분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해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방지할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해 10대 치안사건에 아동학대 사건이 무려 3건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뉴스가 아닐까 한다.

정작 문제는 아동학대라는 중대범죄가 자녀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숨겨질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자녀의 교육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얽힌 문제라 어느쪽이 올바른 자녀의 훈육

방향인지 우열을 가릴수는 없긴 하다

국어사전에 '달초(撻楚)'라는 말이 있다.

이말의 어원은 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훈계 할 목적으로 회초리로 불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라고 적어두고 있다.

예전 가부장적 풍토가 강하던 중장년층 부모세대에서야 어릴적 당시에 부모의 체벌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당연시되는 분위기 탓에 '달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현대에서도 '달초' 즉 체벌이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의 참고육 방식으로 인식될지는 의문이다.

자기 개성이 강한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체벌은 오히려 내면에

잠재해있던 반항심과 폭력성향을 키워 결국 가족간 불화와 더불어 학교내 폭력까지 번지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흔히들 자식교육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일용 맞는 말이다.

세상살이와 자녀교육에 결코 정답은 있을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함에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습득해왔던 수많은 지식은 신세대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평가절하 할수도 있기 때문이리라. 부모가 대화의 상대방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수 없다면 결국엔 서로간 평행선만을 달리게 될 것이다.

역사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한편 자녀를 이해하려는 많은 대화 시도를 통해 우리 자녀가 가족의 사랑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우리들 몫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제는 자녀 체벌 훈육 명목의 친권자의 자녀체벌 행위는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거셨던 자녀 훈육을 방자한 아동학대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률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그럼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친권자의 징계권이 있을까? 알려진바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59개국에서는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자녀 교육을 방자한 사랑의

매가 흔히 통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선진 외국의 입법 취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동권리 실현 국제NGO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체벌을 받은 아동 중 73.8%는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통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까지 포기하거나 등한시 하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사회가 하루케 다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자녀의 훈육적 사고 및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것이다.

진정한 참된 자녀 훈육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마땅히 지녀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교육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의 매로 포장되었던 자녀 체벌과 학대는 이제 엄연히 금지 되었다.

자녀를 한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한편 지금과는 다른 훈육방식 도입 고민을 통해 기성세대의 몫을 다할수 있는 사고방식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해 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한파, 심근경색·협심증 주의

다시 찾아오는 한파. 지난 주부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또 다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한다.

추운 날씨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가 1도 이상 내려갈 때마다 심혈관 관련 사망률이 1.7%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은 관상동맥

질환의 양상이다.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혈류 공급 장애가 생기면서 심장기능 손상으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관상동맥중재술이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치료법 중 하나로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흔히 이뤄지는 시술이다.

풍선과 스텐트를 이용해 막힌 관상동맥을 뚫거나 확장하는 방법으로 팔이나 다리의 작은 혈관 속으로 풍선이 달린 도관(카테터)을 넣은 뒤

막힌 부분에서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뚫어준다.

이후 특수 금속으로 이뤄진 격자 모양의 작은 튜브(스텐트)를 넣어 풍선 시술 후 남아 있는 협착을 없애는 원리다.

심혈관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위험인자 관리가 필수다.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비만증, 당뇨병을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짠 음식과 튀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 등을 섭취 하는 게 좋다.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외출 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 될 경우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혈압이 높아져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핫 팩, 모자 등을 이용하여 체온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화영/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